구미경제 지표

구미경제, 회복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6월 수출액

17.2 억 달러

+23.0% 전년 동월 대비

무역수지 흑자 15.0억 달러 · +24.2%

출처: 한국무역협회「지자체 수출입」

6월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14,079 명

+1,999명 전년 동월 대비

2025년 하반기 경제활동인구·취업자·고용률도 전년 대비 증가

출처: 고용노동부「고용행정통계」

골목경제 현실

회복의 흐름, 아직 골목까지는 아닙니다

구미산단 소규모 상가

공실률

15.2% → 18.8%

2025년 2분기 2026년 2분기

+3.6%p

1년 사이 공실률 상승

고용과 소비는 좋아지고 있지만,

구미산단 소규모 상가의 빈 점포는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경제지표가 좋아지는 것과,
골목상권이 살아나는 것은 다릅니다.**

출처: 한국부동산원「임대동향 지역별 공실률」

첫째

현장을 알아야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 수 있습니다

체계적인 실태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01 어떤 업종에
어려움이 집중되고 있는가

02 어느 지역에서
공실이 증가하고 있는가

03 창업과 폐업의
주요 원인은 무엇인가

04 지원사업을
실제로 누가 이용하고 있는가

지원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현장을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둘째

정책이 다시 현장으로 돌아오는 구조를 만듭니다

조사 → 계획 → 시행 → 평가 → 다음 계획

01
조사
실태를 파악하고

→

02
계획
정책을 설계하고

→

03
시행
지원사업을 집행하고

→

04
평가
성과를 확인한다

↻ **성과를 다음 계획에 다시 반영**

해마다 사업 하나를 추가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현장의 변화에 맞춰 정책을 발전시킵니다.

셋째

지금 당장, 소비 선순환을 촘촘하게

중장기 체계 개편에는 시간이 걸리지만, 지금의 어려움을 기다리게 할 수는 없습니다.

01

구미사랑상품권

발행 규모와 할인 지원을
경기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02

지역소비 선순환

시민 소비가 지역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소상공인·전통시장으로 돌아오도록

03

특례보증·이차보전

현장 수요에 맞춰 지원을 확대하고
정보 부족·신용 여건에 따른 사각지대를 줄이도록

성장의 온기가 골목까지 이어질 때, 시민은 비로소 체감합니다.